



왼쪽부터 로제, 제니, 지수, 리사.

블랙핑크 완전체 온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올여름 월드투어 개최를 발표하면서 완전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멤버들은 솔로 음반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팀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팝 시장 음반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블랙핑크의 복귀가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블랙핑크, 7월 상대한 복귀식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7월 5~6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투어를 시작으로 팀 활동을 재개한다.

현재 10개 도시 공연 일정을 공개한 가운데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런던 웹클리 스타디움에 입성하는 등 대규모 투어를 예고했다.

블랙핑크가 투어에 나서는 것은 2022년~2023년 진행된 '본 핑크'(BORN PINK) 이후 약 2년 만이다. 블랙핑크는 해당 투어를 마친 뒤 YG엔터테인먼트와 팀 활동 재계약을 맺었고, 이후 개인 활동에 매진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블랙핑크의 컴백과 월드투어를 예고한 YG는 완전체 복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조직도 사내에 마련했다.

블랙핑크는 자신들이 보유한 K팝 걸그룹 월드투어 역대 최대 관객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이들은 '본 핑크'로 관객 180만여명을 동원한 바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본 핑크 투어에 버금가는 역대급 규모와 최상의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글로벌 최정상 그룹다운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블랙핑크 27' 기대감 높은 솔로 활동  
멤버들은 팀 활동 공백기 동안 솔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로제는 지난해 발표한 정규앨범 '로지'(rosie) 선공개

7월 5~6일 고양서 월드투어 시작  
K-걸그룹 첫 英 웹클리 스타디움 입성  
10개 도시 일정 공개...최대 관객 도전

로제 '아파트'·지수 '아모르타주' 등  
완전체 활동 전 성공적 솔로 활동  
K팝 음반 시장 주춤 속 화제성 기대

곡 '아파트'(APT.)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서 각각 최고 순위 3위와 2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누렸다.  
지수의 미니음반 '아모르타주'(AMORTAGE)도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순항하고 있다.

리사와 제니도 각각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리사는 오는 28일 '얼터 에고'(Alter Ego)를, 제니는 다음 달 7일 '루비'(Ruby)를 선보인다.

솔로곡을 피쳐링하는 팝스타들의 명단에서 멤버들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브루노 마스는 로제와 '아파트'를 발표하고 앨범 수록곡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리사의 앨범은 로살리아, 도자 캣, 타이틀라 등이 피쳐링을 맡았고 제니는 두아 리파, 차일디시 감비노, 도이지 등과 협업했다.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약하는 등 활동 폭도 넓어졌다.

리사는 미국 HBO 드라마 '더 화이트 로투스'(The White Lotus) 시즌 3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고, 지수는 쿠방플레이 드라마 '뉴토피아' 주연을 맡았다.

전문가들은 다시 뭉친 블랙핑크가 젊은 세대에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서도, 뮤지션으로서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퍼 히어로 영화를 제작하는 마블이 캐릭터별 솔로 영화를 공개해 팬을 모은 뒤 캐릭터를 한데 모아 '어벤저스'를 선보인 전략에 비유하기도 했다.

임희훈 대중음악평론가는 "리사는 아시아 시장을, 제니는 할리우드를 공략하며 저마다 활동 반경을 넓혔다"며 "솔로 영화로 세계관을 확장한 뒤 '어벤저스'에 더 많은 관객이 모인 것과 비슷한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서트 구성 측면에서도 강력한 솔로 무대는 관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전망했다.

◇ 글로벌 그룹 복귀 화제성 기대하는 가요계  
블랙핑크의 복귀는 음반 판매량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K팝 시장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씨클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상위 400개 K팝 음반의 판매량을 합한 수치는 330만장으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2024년 12월 대비 38.0%, 2024년 1월 대비 40.0%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스타인 블랙핑크의 복귀는 K팝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활동한 그룹이 가진 콘텐츠의 힘이나 팬들의 힘이 발휘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올해는 신인부터 다양한 세대 그룹들이 활동하는 해인데, 블랙핑크의 복귀가 다른 그룹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복 벗고 '연기 대결'

서강준·강태오·박진영, 각각 드라마 복귀



왼쪽부터 서강준, 강태오, 박진영

심리전과 협상에 뛰어난 국정원 요원 서강준, 잘생겼지만 인정(人情)이 없는 회사 임원 강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건 데이터 마이너 박진영까지.

군복을 벗고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세 배우가 개성 뚜렷한 캐릭터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서강준은 전역 후 첫 복귀작으로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선택했다. 지난 21일 첫 방송을 시작해 첫 회 시청률 5.6%를 기록했다.

ENA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자마자 입대해 팬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켰던 강태오도 내달 1일 새 드라마로 돌아온다. tvN에서 방송되는 코믹 로맨스 '갑자로맨스'를 통해서다.

지난해 11월 전역한 박진영은 입대 전 활약을 마쳤던 채널A 드라마 '마녀'를 복귀작으로 내놓는다.

'마녀'는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건을 기록한 강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연합뉴스

코미디언 심현섭 4월 결혼



코미디언 심현섭(55·오른쪽)이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한 비연예인 연인 정영림과 오는 4월 중 백년가약을 맺는다.

22일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심현섭은 오는 4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심현섭은 연인과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해 연애와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해왔다.

심현섭은 1994년 MBC 개그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데뷔했고, 1996년 SBS 공채 5기로 입사했다. 이후 KBS로 이적해 '서세원쇼',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개그콘서트'의 코너 '봉숭아 학당'에서 맹구 역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